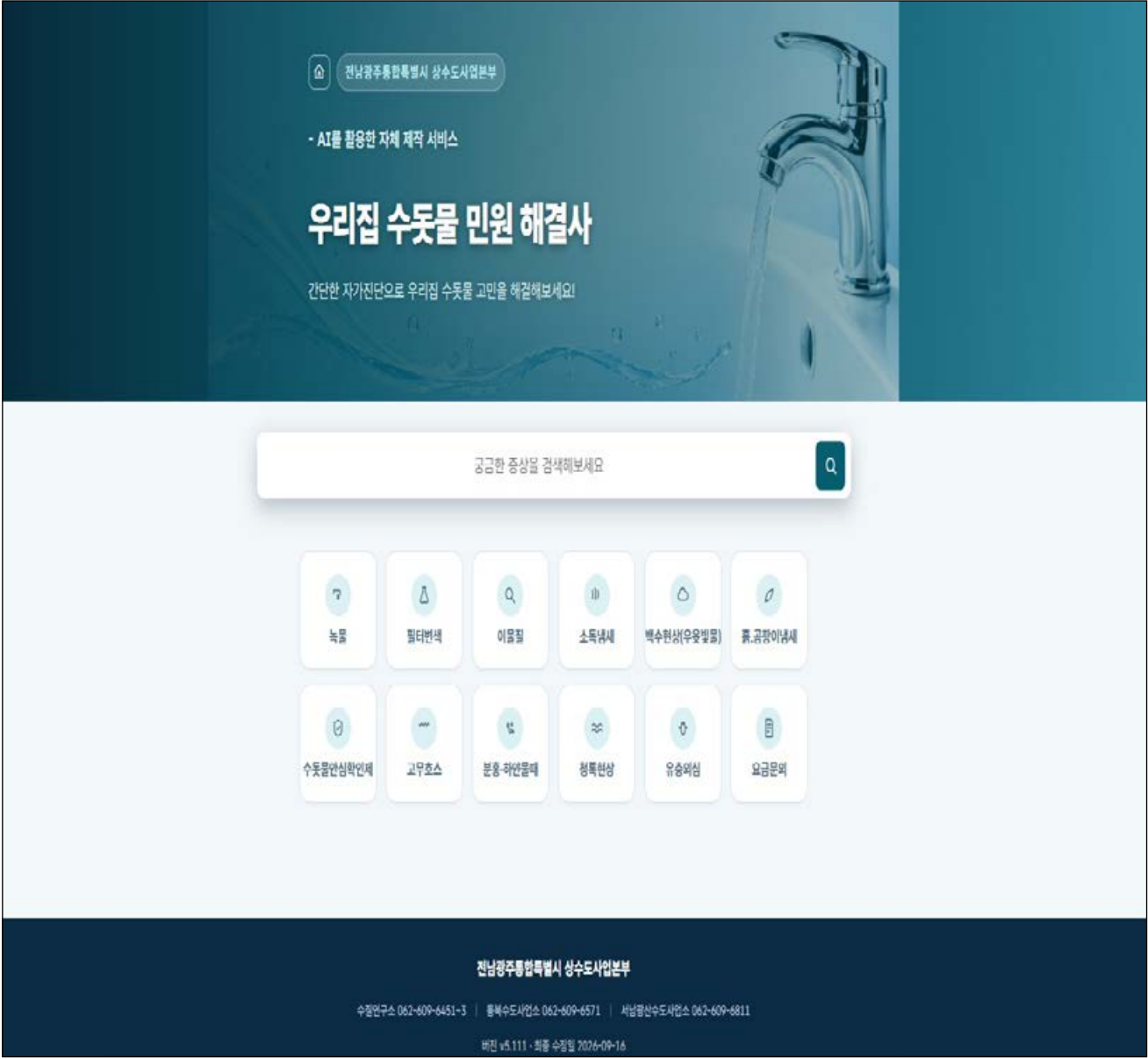


전남광주, AI로 우리집 수도물 이상 직접 확인



‘우리집 수도물 민원 해결사’ 서비스 화면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제공

이물질·흙탕물 등 12가지 민원 해결책·담당부서 즉시 안내

외부 용역·예산 없이 인공지능(AI) 활용 직원이 자체 개발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시민들이 수도물 이용 중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우리집 수도물 민원 해결사’를 자체 개발, 서비스에 들어갔다.

‘우리집 수도물 민원 해결사’는 필터 변색, 이물질 발생, 소독약 냄새, 흙탕물, 청독현상, 배수현상, 요금문의 등 시민들이 자주 겪는 12가지 수도물 관련 현상들을 유형별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민이 해당 현상을 선택하면 주요 발생 원인과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한다.

그동안은 소독약 냄새나 필터 변색 등 수도물에 이상이 생겨도 정확한 원인이나 담당 부서를 찾기 어려웠. 여러 부서로 중복 문의하는 불편이 잦았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불편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담당 직원들의 반복적인 전화 안내 업무 효율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가정 내 1차 조치 후에도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이상 현상과 거주 지역에 따른 담당 부서와 직통 연락처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는 수질연구소 문수진·류미금 주무관이 추가 예산이나 외부 개발 용역 없이 바이트 코딩(AI)을 업무에 적용했다. 시민들이 자주 묻는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담당 부서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우리집 수도물 민원 해결사’는 지난 9월23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누리집 내 상수도수질-상수도참고-민원해결사 메뉴에서 시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다. 김한희 수질연구소장은 “이 서비스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인공

지능(AI)을 업무에 적극 활용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수도물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질연구소는 앞으로도 실제 시민 민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안내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겪는 새로운 수도물 관련 현상을 추가해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도 적극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수도물에 대한 궁금증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 중심의 상수도 행정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기아 오토랜드광주, 2026년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력사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시작합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공장장: 문재웅)는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2026년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6일(화)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아 오토랜드광주와 협력

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협력사의 재정상태, 지원 요청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사내 협력사 7개사, 사외 협력사 7개사 등 총 1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외부 컨설팅 또는 안전보건 물품을 지원한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 평가

기업을 전수하고 실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협력사 자체적으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보건 물품 지원에서는 자동제세동기(AED)와 안전화, 보호장구 등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보건 물품을 지원해 협력사 현장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10월까지의 외부기관 컨설팅을 진행 및 물품을 구매 지원하고, 11월에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 상생협력사업 총 사업비는 약 7800만원으로 사업비는 기아 오토랜드광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동 부담을 하며 물품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선 집행, 사업 종료

후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관계자는 “이번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안전 생태계를 구축하여 업계 전체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